

월/요/광/장

최병진



지난 3월 12일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경제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한국을 인터넷 자유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 173개국 중 47위를 기록하였다(2002년 39위,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순위발표 이후 한국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2003년이였다.

이다. 언론 자유지수는 기자 살해, 체포 및 투옥, 협박 및 고문 등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와 검열·압수·수색·규제 등 미디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제약 등을 50여개 항목으로 세분해 산출한다. 올해 평가대상인 2008년 9월 1일부터

대 최대 규모인 40여 명의 언론특보단을 휘하에 뒀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회·청와대·공기업 등에 진출했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12명이 집권 1년 만에 언론사·언론재단·언론기관 등에 사장이나 이사로 선임됐다. 대선 특보단은 정부 가 언론사를 장악하는 첩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면서 YTN노조는 강력히 반발하여 제작거부는 물론, '공정방송 사수 및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노조위원장도 파업을 하러 앞두고 3월 24일 구속되었다.

수첩을 고소한 것 자체가 한 편의 코미디라는 평가도 있다. 촬영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 역시 한마디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태가 된다. 원본은 제보자의 신원 및 취재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자료다. 그런데 이 자료가 권력에 의해 노출되고 조사된다면 어느 누구도 잘못된 일을 고발하기 위해 언론사를 찾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 스스로가 구축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할 실천적 윤리이다.

지난 3월 23일 국경 없는 기자회 대변인 겸 아시아-태평양 데스크인 뱁스 브로셀 기자가 내한해서 5박 6일 동안 한국의 언론 상황을 취재하고 돌아갔다. 그는 귀국 후 한국의 언론 현실을 고발하는 스페셜 리포트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5년 동안 한국의 언론 현실과 관련해 해서 스페셜 리포트는 없었다. 독자 국가를 대상으로 취재하는 흔한 일이지 민주화된 나라 경우에는 매우 드문 일이다"고 밝혔다. 선진국 중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와 같은 리포트를 작성한 나라는 언론 재벌 출신인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언론 전횡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뿐이었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언론자유 의 현주소

2009년 상반기까지 언론자유지수와 관련해서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자.

지난 1월 검찰이 긴급체포·구속해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미네르바는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실 일사적인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와 경제전망평론을 규제하려는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지난 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PD수첩 수사는 지난 달 3일 정운찬 전 농림부장관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준근 PD와 김보슬 PD를 긴급 체포하고 PD수첩 광우병 방송 편에 대한 촬영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면서 문화방송 여의도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 정국 때, 한-미 쇄고기 협상결과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조속협상 장본인인 전 농림부장관이 PD

이 해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때로 당시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사들이 좌파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었고, 이들 신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관용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8년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2007년 10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의거 기자실을 폐쇄한 정부의 조치를 취재 방해라고 비난한 일선 언론인들의 저항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성적표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매우 부정적

시설

'숨방망이' 사학비리 징계 개선책 서둘러라

최근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현행 사립학원 비리에 대한 숨방망이 징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사채용 비리로 비난을 받은 정광학원이 시 교육청의 해임 징계요구를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시 교육청의 유일한 제재카드인 학급 정원 감축, 각종 보조금 중단 등 행정·재정적 조치마저도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시 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학의 논리에 '주춤'해지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학의 제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다.

이달 초 광주시 교육청은 교원인사채용 비리에 관련된 학원 이사장과 이사, 정모 정광고 교장, 형모 정광중 교장(당시 정광고 교감) 등 4명을 해임하고 부당합격학 교원 6명도 합격을 취소하라며 정광학원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이사장과 이사를 사임 또는 해임조치했지만 교장 두 명에 대해서 징계를 미루고 있다. 오히려 형모 당시 교감은 정광중 교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립학원이 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묵살하는 이유는 교원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단이

사장이 사립교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는 이사회 고위 권한인 만큼 시 교육청의 해임요구는 구속력이 없다. 재단이 시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시 교육청의 유일한 제재카드인 학급 정원 감축, 각종 보조금 중단 등 행정·재정적 조치마저도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시 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학의 논리에 '주춤'해지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학의 제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이번 정광학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런 더 이상 사학비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게 됐다. 사학 자체의 힘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필요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 환수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정광학원 비리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돼지독감' 국내 유입 철저히 차단해야

돼지독감(swine flu)의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TO)가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신종 돼지독감의 출현으로 25일까지 멕시코에서는 81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독감 출현이 확인된 지 며칠 만에 무서운 속도로 피해가 커지면서 멕시코는 '패니' 상태에 빠졌다. 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인근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도 무기한 휴교령이 발령됐고 영국과 콜롬비아에서도 감염 의심보고가 잇따랐다.

신종 독감 출현이 확인된 지 며칠 만에 무서운 속도로 피해가 커지면서 멕시코는 '패니' 상태에 빠졌다. 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인근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도 무기한 휴교령이 발령됐고 영국과 콜롬비아에서도 감염 의심보고가 잇따랐다.

돼지독감은 조류독감과 같이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 가능한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과 조류, 2종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뒤섞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사망률이 5~1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 고약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우려돼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됐던 것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신종 돼지독감의 출현으로 25일까지 멕시코에서는 81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독감 출현이 확인된 지 며칠 만에 무서운 속도로 피해가 커지면서 멕시코는 '패니' 상태에 빠졌다. 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인근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도 무기한 휴교령이 발령됐고 영국과 콜롬비아에서도 감염 의심보고가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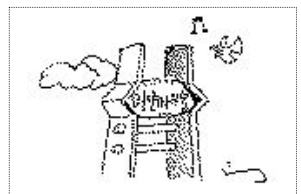
따라서 돼지독감이 국내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항과 항구 등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 1차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하고 만에 하나 방어망이 뚫릴 경우를 대비해 2, 3차 방어선을 구축해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無等鼓

인도차이나반도 서쪽의 연방공화국. 국민의 90%가 불교도이며 신앙심으로 쌓아올린 파고다들이 즐비한 '불탑의 나라'. 남한과 인구는 비슷하지만 면적은 6.8배에 달해 동남아에서 가장 크다. 우리에게는 '버마'와 '아웅산데라'로 기억되는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미얀마는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힌다. 지난 1962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47년 동안 철권통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은 그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1988년 8월 8일 당시 수도 양곤에서 수만명이 벌인 '8888 민주화 시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3천여 희생자를 낸 채 분투를 삼켜야했다.

가득 연금했다. 이후 연금과 해제를 반복하다 2003년 5월 세 번째 연금에 들어 매년 연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는 만 13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그 와중에도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어 1990년 5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군부는 이를 무효화한 뒤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미얀마의 봄



수치 여사는 2004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5·18기념재단은 올해의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민코나잉(47·Min Ko Naing)씨를 선정했다. 그 역시 20년 동안 군사독재정권에 맞서는 미얀마의 분투를 삼켜야했다.

민주화 운동가다. 그는 2007년 체포돼 6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수치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상을 받으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 싸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미얀마에 민주화의 봄을 불러오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최홍규



지난해부터 강원 남부 및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내린 단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남지역 소재 주요 상수원인 주암댐과 장흥댐 저수율은 21일 기준 각각 19.2, 30.8%이다. 현 수준의 유입조건에서는 올해 홍수기 전까지 물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질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1b 수준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강우가 시작되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정체되어 있던 쓰레기와 흙탕물이 하천과 댐 내로 일시적으로 유입돼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상수원 보호하자

특히 주요 상수원 유역에 방치되어 있던 각종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가 홍수로 하천을 따라 댐으로 유입되면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바닥 침전·부패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국 수계 단위 탁수발생 사전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탁수 및 부유물 관리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부유물 및 흙탕물 발생에 의한 피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는 7억여 원의 비용을 투입해 댐 내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해마다 쓰레기 수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상수원관리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책임 있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내 집 주변과 내 물건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마시는 물인 상수원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 하겠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홍수기 전 댐 주변 특별 점검과 대형결 운동회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200m의 폐기물을 자체 수거하고 방치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여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폐기물 및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추

우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뭄을 겪으면서 물의 소중함을 새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동안 가뭄 극복과 수질 개선 등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 방울의 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 버리지 말기, 버려진 쓰레기 줍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같은 약도 약국마다 30~50% 차이... 원가 공개해야

약을 사먹을 때마다 약값들이 지역마다 혹은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 먹는 과자 값이나 가정에서 사는 식품품 같은 거야 약간씩 차이가 나고, 소위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게 있으니 가격차이가 조금 있는 거야 이해할 한다. 지난해 마산의 모 약국에서 우형청심원액을 3천 원에 구입했는데 똑같은 제품을 부산에서는 2천 원에 구입하니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이 상당히 불쾌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값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어 그제 30~50%씩이나 차이가 나니 도무지 헛갈리고 이해할 수 없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백해무익하다는 담배값의 경우 경상남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강원도 폭대까지 전국이 단 1원도 틀리지 않은 정구가격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값이 지역은 고사하고 한 동네 약국마다 다르다. 당국에서는 아예 약값 원가를 인터넷이라도 공지 해 소비자들이 판단이나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기고

김재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한상(韓商)네트워크 "World-OKTA 세계대표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된다. World-OKTA는 세계 60여 개 국가 106개 지역에서 5천여 회원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500여 명과 수출상품 전시회에 참가할 국내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필자가 2008년 2월 광주컨벤션뷰로에 이 국제행사 유치에 제안하고 4월에 유치활동을 하였던 것은, 2007년 4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상대회 상임이사회에서 호텔 등 국제행사 인프라 부족으로 세계한상대회 광주 유치에 실패하면

광주 World-OKTA대회 잘 활용해야

서 세계한상대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한상대회의 핵심적인 조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World-OKTA의 글로벌 네트워크 특성 때문이다. World-OKTA는 대부분 무역과 해외 투자에 종사하는 한상 중에 최고 한상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한상대회나 World-OKTA대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모국 상품 세계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회에 참가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바이어들을 자사의 전사부스 내로 유치하여 최대 수출 상담 성과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전시회에 설치된 부스규모, 부스위치, 현장프로모션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각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스 규모가 크고, 인터리어를 잘해놓을수록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보다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상품 브랜드를 홍보하여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현장 프로모션으로 상품 샘플 제공, 제품 시연, 홍보자료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

World-OKTA 등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활성화해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상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들은 참가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홍보 및 광고, 부스 직원 교육 등과 같은 사전활동이 중요하다. 전

투어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상대회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전시회가 당일 MOU체결 실적이나 상담 실적을 성과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대부분 허수에 가깝다. 상담과 MOU체결 이후 실제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규모를 추적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600여 명의 해외 한상 바이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World-OKTA 수출상담회는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함께 KOTRA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해외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World-OKTA 등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도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KORiaspora연구회장>

돈 안주면 사이트 공격... 사이버 조폭 근절 대책 필요

인터넷에서 한 꽃매달 업체가 보안전문 회사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요즘 인터넷 예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진 가짜 이메일로 협박이 들어와 걱정이라는 상담이었다. 예를 들어 해커를 고용한 사이버 조폭들이 중국 같은 곳에 본부를 차린 후 국내에 컴퓨터시스템상 방어 능력이 취약한 업체 등을 골라 "해킹 공격으로 사이트들 다운시킬 수도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식이다. 이런 공격방식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특

정 사이트로 흘러보내 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인 이른바 "디도스 공격"이다.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업체들은 이런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을 막고도 방화시스템을 설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 결국, 돈을 주고라도 당장의 큰 피해를 막으려 할 것이고 사이버 조폭들은 더욱 기세를 부리지 않을까.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정책을 만들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度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 회 2 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